

역대 주식부자가 기초수급자로... 공무원 배우자가 차상위 지원 받기도

복지예산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샌다

긴급복지지원금은 규정에 묶여 낮잠

광주·전남지역의 역대 주식 부자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복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소외계층은 연락도 되지 않는 가족(부양의무자)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긴 소득 때문에 생

계여가 깎이고 있다. 또 위기에 처한 빈곤층을 돕는 긴급복지지원금이 제때 쓰이지 못해 불용처리되고 있다.

◇역대 주식 부자가 수급자 둔갑=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에 대한 종합점검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A씨는 액면가 8억 1000여만원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12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됐다. 금융재산 조회과정에 A씨의 재산 중 비상장 주식은 드러나지 않고, 1400만원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수로 광주에서만 1억~8억원대 주식 부자 9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각종 지원을 받았다.

또 전남 나주와 순천에서도 2명이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6000만원대 주식이 있는데도 보장을 받았다.

차상위자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의 배우자들이 차상위자로 선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강진·광양·나주·장성 등지의 계약직, 소방장, 기능 8급, 일반 6급, 지도사 등의 공무원 배우자들이 차상위자로 지원을 받고 있었다.

또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현직 공무원이어서 소득이 복지도우미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담양·목포·영암·완도·장흥·함평 등지에서 일반 6급, 경위 등 7명의 공무원 자녀가 복

지도우미 혜택을 받았다.

◇복지사각, 수급 취소 잇따라=복지 예산이 부적격자들에게 잘못 쓰이고 있는 반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은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올 3/4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급자격 상실 및 지원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구두담화를 하는 한 가정의 7인 가족의 월수입이 100만 원 남짓한데, 2000년식 9인승 차량(매매가 100만원 미만)의 배기량 때문에 재산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전남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연간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1월말 8만7925명으로 지난해 말 9만6641명에 비해 8716명(9.1%)이 줄었다. 이중 사망(2021명)과 전출(498명)을 제외한 순수 중단자는 7794명에 달했다.

전남도는 매년 수급자가 준 것은 본인이나 가족 등 부양의무자의 신규 소득 발생 등 자격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금은 '낮잠'=저소득층의 가장 등이 사망하거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금 제도도 활발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올해 확보한 긴급지원금 예산 33억5800만원 가운데 지난해 말 현재 29억3000만원을 집행했고, 전남도는 48억여원 중 30억여원만 썼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된다.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의 빈곤층'은 늘어나는데, 긴급지원금은 남아도는 여허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긴급지원금은 금융재산 300만원 이상이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권교체와 새정치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연대'는 11일 오전 YMCA무진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새정치를 위한 대선 투표참여 운동에 돌입했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투표참여운동 불 붙었다

'투표 할인 마켓' 1주일만에 500호점 돌파
광주·전남 시민단체, 교수, 대학생 캠페인

선택 2012 대선 D-7

제18대 대통령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표 참여 운동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투표한 유권자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투표 할인 마켓'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광주지역 교수·대학생들도 100% 투표참여운동에 나섰다.

'투표 할인 마켓'은 유권자들이 투표 인증샷(투표소 앞) 또는 투표 확인

증(투표소 현장 발부)을 제시하면 할인 및 덤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선거참여 운동으로, 투표자와 소상공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익형 투표참여 캠페인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투표참여 시민행동'이 추진하고, 상가방영회 및 음식점중앙회 등 개인상가와 회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광주에서 시작된 이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으로 500개 '투표 할인 마켓'이 참여했다. 지난 5일 '투표 할인 마켓' 1호점으로 참여한 광주 서구 치평동 메가박스 클럽버스

상무점과 하남점은 투표한 유권자에게 19~20일 이틀간 영화 7권을 반값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2일에는 광주 동구 충장서림이 300호점으로 참여하며, 14일에는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 위치한 커피숍이 500호점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 점포에선 투표 확인증과 투표 인증샷만 있으면 선거일인 19일과 다음날인 20일 이틀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 교수 및 광주·전남 대학생 대표단 100여명도 '반값 등록금과 지역경제 취업활달제 실현을 위한 100% 투표 참여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광주·전남지역 교수 및 청년학생들은 100% 투표참여를 통해 반값 등록금과 지역경제 취업활달제를 실현해 줄 대통령을 선출하자"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광주·전남지역 정당·시민단체가 참여한 '정권교체 새 정치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연대'도 11일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유정현 전 YMCA 전국연맹이 사장 등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새 정치를 위한 투표 참여운동에 나섰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알림

제21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 바둑대회



- 일시: 2012년 12월 22일(토) 오전 10시
- 장소: 한국기원 광주지원(광주시 남구 주월동 구 국제호텔 건너편)
- 참가자격: 광주·전남지역 근무 직장인
- 팀구성: 단체전=1팀 3명(주장·부장·삼장)
한 직장에서 여러팀 참가 가능
개인전=각 팀에서 1명
- 참가신청: 2012년 12월 21일(금) 오후 5시까지
한국기원 광주지원 062-675-3448
- 참가비: 1팀당 3만원(개인전 포함)
- 시상: 단체 및 개인별 우승, 준우승, 3위

光州日報社

재외 대선투표 종료... 투표율 71.2%

13~14일 부재자 투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재외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71.2%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3-5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10일 세계 110개국 164개 공관에서 치러진 재외 대선투표에 지난달 20일까지 신고·등록을 마친 재외 선거인 22만2389명(등록률 10.01%) 중 15만8235명이 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70%대의 투표율은 4·11 총선 때

의 45.7%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투표 수도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중앙선거위는 또 오는 13~14일 제18대 대선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총 108만5607명이며, 이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81만755명에 비해 33.9% 증가한 것이다. 부재자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3' 학부정시(개교)
원서접수
12.21(금)~26(수)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2013학년도 모집분야
■ 석사과정(아간): 광주반, 여수반
■ 일반전형('12.12.19까지 접수)
■ 최고정책과정 ■ 관리자과정
전화 062-530-5196 FAX 530-2266
홈페이지: http://cnugpa.kr

품격이 있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정확한 티·오프 시간으로 고객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해피니스 회원원 하나로 3개의 골프장을 즐겨라!"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회원권** 분양
300구좌중 잔여35구좌분양 마감임박!

김에 정산컨트리클럽 상호 업무 제휴 협약(상호 준회원대우)
제주 아덴빌 리조트 앤 골프클럽 상호 업무 제휴 협약(상호 준회원대우)

* 계약서에는 소수 골프장 계약이 아닌 전체 회원권 계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상기조건은 골프장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 2012년 12월 3일 현재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2012년 12월 5일부터 ~ 2013년 3월 31일까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651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클럽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651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4차) - 모집인원: 5명

- ▶ 입회금액: 3억3,000만원
- ▶ 회원특전
- 공통-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8회 주말부킹 보장(1일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평일부킹권 부여
- 선택-A형 B형 중 선택(1)
 - A형)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50% 할인, 연20회 그린피면제 (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 할인(연 20회 사용, 1일1회 사용)
 - B형) 정회원 동반2인 그린피50% 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1일1회 사용)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 할인(연 36회 사용, 1일1회 사용)

하트 정회원 - 모집인원: 5명

- ▶ 입회금액: 2억원
-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1인: 그린피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 1일 1회)

해피 정회원 - 모집인원: 10명

- ▶ 입회금액: 1억 1,000만원
- ▶ 회원특전
- 공통: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C형, D형 중 선택(1)
 - C형) 무기명 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 할인(연 45회 사용, 1일 1회)
 - D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비즈니스 정회원 - 모집인원: 10명

- ▶ 입회금액: 2억원
- ▶ 회원특전
- 무기명카드 1매 발급(회원일용), 월4회 주말부킹보장(1일1회), 골프텔개장시 할인혜택
- 그린피 면제, 키트비 면제(개별서비스 기타 제세과내 분담부담)
- 무기명카드 연78회(주중 48회 / 주말 30회)
- 1일 사용가능회수중 8회 사용(주-8회사용, 2주-4회사용), 주말 4회 사용(전체)
- 식음료 면제 사용시 포인트차감, 분량제한 회원친선&점포연대회 참가자격 부여

휴먼 정회원 - 모집인원: 5명

- ▶ 입회금액: 1억 5,000만원
-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1인: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연 90회 사용, 1일 1회)

중증 / 평일 회원 - 모집인원: 46명

- ▶ 입회금액: 3,300만원(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 ▶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 할인

은	행	명	광주은행
계	좌	번호	001-127-012066
예	금	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비	고	계	계좌금 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환납

* 계약서: 정회원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환시: 모든 특선
* VIP 비즈니스: 휴먼, 휴먼, 휴먼 정회원은 금융당국에 80% 이상 보증인(보증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 Fax 061)33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 www.happinssc.com